

7

July 2019
No.84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

퇴임사

· 제5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서명교

이슈진단

- 건설수주 지표 반등세와 지속가능성
- 지자체 주거대책의 새로운 모델로 관심 받는 '자율주택정비사업'
- '통합물관리'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

발간물안내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문건설업종별 기술 개선수요 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리뷰 발간
- 건설정책저널 제34호 - “건설융합의 현황 및 발전방향 특집” 발간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인의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희망가를 기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입니다.

7월의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쉼 없이 달려온 2019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일 또한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성공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 통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기에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선구자로 기억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에 맞서 나가는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구분 짓게 합니다.

‘우는 사람은 삼류’이고,
‘참는 사람은 이류’이지만,
‘웃는 사람은 일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굳건히 내실을 다지고 버틴다면, 머지않아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월의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열정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열정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오늘날의 시련은 먼 훗날 우리에게 값진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힘차게 시작하는 뜻 깊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며, 연말이 되어서는 우리 전문건설업계에도 지난여름,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희망가”를 다 함께 웃으며 노래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5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서명교



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서명교입니다.

저는 7월 초를 마지막으로 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저와 연구원을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한 시기였습니다.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해 시야를 넓히면서 또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건설업이 더욱
성장해나가고 현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한편으로는 건설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문건설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 업계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나름 애써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과 미래는 전문건설업에 좌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역시 전문건
설업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건설업계의 지도자격인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웅대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서명교

건설수주 지표 반등세와 지속가능성

박 선 구 경제금융연구실장 (parksungu@ricon.re.kr)

국내 건설수주는 2016년 164.9조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투자도 2017년 251.1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 들어 감소세로 접어 들었다. 복잡한 경기변동에 의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의 시차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동향상 1년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2013년 이후 건설수주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2019년 건설경기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2020년까지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려와는 달리 최근 건설수주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설수주는 48.1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하였다. 민간 부문이 2.5%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25.3% 급증하면서 전체 건설수주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종별로도 토목부문이 12.9% 증가하면서 건축부문 5.3%에 비해 증가폭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기성과 건설투자의 부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9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건설투자는 65.6조원으로 전기 대비 0.8%, 전년 동기대비 7.2%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성 역시 2019년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4%가 감소하였다. 또한, 건설업

성장률에 있어 토목건설은 9.7% 증가한 반면, 주거용 건물건설은 4%가 줄어들었으며, 전문건설의 경우 1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지표를 종합해보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와 기성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건설수주의 회복세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의 시차가 대략 4분기임을 감안하면, 2019년 건설수주의 회복세는 2020년 이후 건설투자, 기성 등 건설업 전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주택 인허가 등 공급지표가 지속 하락 중이며, 소비자 심리 역시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건설수주 증가세의 요인으로 작용한 공공부문 수주 증가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건설산업은 경기 하방압력이 매우 큰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투자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경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주거대책의 새로운 모델로 관심 받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유 일 한 연구위원 (ihyu71@ricon.re.kr)

최근 빈집 및 소규모 노후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단위로 개발되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단위로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이중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최근 준공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낙후된 저층 노후주거지(노후건축물 2/3이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지의 조건이 다양해 획일화 된 건축물이 양산될 우려가 없고,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조합설립 등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정의: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유형: 자율형(구획만 재정비하여 개별필지의 집주인이 자율 추진), 건축협정형(집주인들의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전체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 합필형(2필지 이상의 토지를 통합하여 사업 추진)

- 절차: 사업 발굴 및 상담·접수→초기 사업성분석→주민합의체 구성 지원→인허가 및 기금융자 지원→이주·청산 지원
- 특례: 건폐율, 용적률, 조정,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심의회 따라 1/2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건설시 상한까지 건축 가능
- 융자: 주택금융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사업시행인가 시부터 연1.5% 금리로 총사업비의 50~70% 융자(한도)

2019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어 추진 중이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였고, 올해 들어 서울 당산동(1호), 대전 판암동(2호) 자율주택이 준공되는 등 지자체 소규모 노후주택지의 새로운 주거대책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상주택을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대상지역 또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한국감정원, HUG, LH공사 등)의 참여 및 지원을 적극 유도하는 등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주택 1,000만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생활SOC 사업들과 연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앞으로 매우 유망한 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다. 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기여, 그리고 주거복지 실현 측면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선제적 대응 및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물관리’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 (skpark@ricon.re.kr)

환경부는 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지난 6월 13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고,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하였다.

통합물관리의 지난 1년 성과로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통해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한 물관리 기본원칙 정립, 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의 시행, 수량·수질 정보의 통합 및 관련 수자원 시설간 연계를 통한 수질 개선 대응체계 구축,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폐수무방류 시범사업(대구-구미) 시행,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스마트 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는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종전의 수질·수량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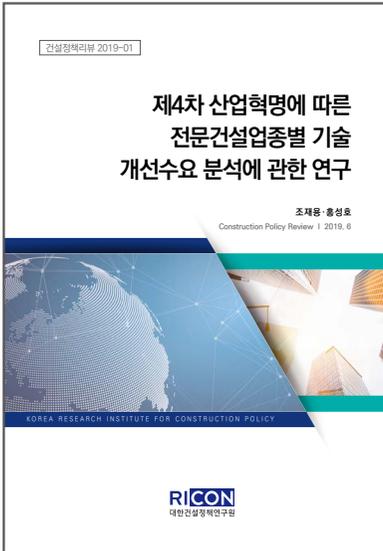
‘스마트 물관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②물안전 확보, ③깨끗한 먹는물 공급, ④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을 제시했다. 또한 수해에 의한 안전 강화를 위해 홍수와 침수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구축하며, 도시지역과 도서산간 지역의 낙후된 상수도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개선을 도모한다. 더욱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해 취수장으로부터 개별 상수도 공급지까지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지난 1년이 통합물관리의 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향후는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중점 추진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30년간 총 12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문건설업종별 기술 개선수요 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리뷰 발간



-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 제4차 산업혁명 대응 R&D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종별 기술 개선수요를 파악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전문건설업종 5대 항목(안전, 품질, 비용, 공기, 노무)별로 기술개발 수요를 3단계(매우높다, 높다, 보통)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당해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산업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정책저널 제34호 - “건설융합의 현황 및 발전방향 특집” 발간



- 우리 연구원은 융합 기술의 발전 및 융합 정책 수립을 통한 건설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34호 '건설 융합의 현황 및 발전방향 특집'을 구성해 발간하였다.
- 이번 호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산업(이화여대 손정욱 교수), ▲모듈러를 활용한 건설자동화와 전문건설업의 미래(유일한 연구위원), ▲스마트 빌딩 IoT 융합 기술의 현황 및 시사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경주 전임연구원), ▲건축물의 기술 융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적 성과 제고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환일 다자협력사업단장), ▲규제샌드박스 법제 분석을 통한 건설산업의 융합 경쟁력 강화 방안(홍성진 책임연구원),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정대운 연구원)의 논단과 건설 융합 관련 각 정부부처의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